

빛은 갓고 세입은 늘린 화천군

재정 분석 전국 최우수 지자체

화천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회계연도 2024년 재정을 기준으로 진행된 이번 분석 결과, 화천군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크게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아 특별교부세 1억원까지 확보했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군 단위 자치단체는 화천군을 비롯해 경기 연천군, 전남 장성군, 경북 청송군 등 4곳뿐이다. 화천군은 소규모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보유 중이던 지방채 97억원을 조기에 전액 상환했다.

이후 장기적 경기 불황에도 추가 지방채 발행 없이 건전재정을 유지 중이다.

특히 철저한 세출 구조조정과 투자사업의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화천군의 통합 재정수지 비율은 10.19%로 비슷한 유형의 군 단위 지자체 평균(-1.73%)은 물론 전국 평균(-2.5%)을 크게 웃도는 우수한 수준이다.

이는 지방 교부세, 순세계 잉여금 등 세입이 전년 대비 638억원(9%) 증가했고, 동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과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 국·도비 보조금 등 이 전수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나아가 화천군은 빛은 갓고, 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지출의 효율화까지 이뤄냈다는 평가도 받았다.

고성군, 2025년 폐건전지

수거 실적평가 ‘최우수’

평화 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이 '2025년 폐건전지 수거 실적평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시, 평창군과 함께 그룹별 1위에 오르며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로부터 '최우수' 기관 포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을 인구수에 따라 세 개 그룹으로 구분해 ▲1인당 수거량 ▲그룹별 점유율 ▲목표 초과 달성도 ▲전년 대비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고성군은 모든 지표에서 고른 우수성을 보이며 환경보호와 자원순환 분야에서의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고성군의 성과는 단발적인 결과가 아니다. 군은 2016년 첫 최우수 수상을 시작으로 ▲최우수('16, '17, '18, '23, '25) ▲우수('19, '24) ▲장려('20, '22) 등 최근 10년간 매년 상위권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며 자원순환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군이 지속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배경에는 실효성 높은 정책과 현장의 협력이 있다.

먼저, 군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폐건전지 교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폐건전지 10개를 가져오면 화장지 1롤로 교환해 주는 주민 제감형 보상제도가 재활용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관내 다수 군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도 힘을 보탰다. 부대 내 폐건전지를 철저히 분리·선별해 배출한 노력이 수거량 증가로 이어졌다.

강원문화재단, ‘강원예술 후원 감사데이(Day)’ 성료

6개 예술단체 x 9개 후원기업, 지역 문화예술 후원 기반 구축 성과 공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은 12일(금) 춘천 세종호텔에서 '강원예술 후원 감사데이(Day)'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최병갑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과장, 예술단체 및 후원 기업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모집 관련 공모사업으로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도한 「2025년 예술단체 후원매칭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에 참여한 9개의 후원기업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다.

예술단체 후원매칭 지원사업은 올해 총 6개의 예술단체가 선정되었으며, 밴드 산책, (주)쌍, (사)한국무용화미술협회, (사)춘천남성합창단, 원주윈드오케스트라, 뮤컴이 참여해 클

래식·합창·시각예술·통합예술치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도내 곳곳에서 추진했다.

또한 9개 후원기업이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동참했다.

참여 기업은 농업회사법인 대관령양떼목장(주), 베이스라인 파트니스(주), 다인, 네오뮤즈, 삼화우드, 봄내병원, 강안팍 영농조합법인, ㈜하이원베이커리, ㈜알지오제지로 기업기부를 통해 예술단체와 결연을 맺고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 기반 조성, ▲기업 후원 문화 확산, ▲지역 주민의 예술 접근성 확대, ▲민관협력을 통한 기부문화 조성 등 다양한 성과를 확인했다.

특히 참여 예술단체들은 후원기업

과 협력하여 학교·지역축제, 공공기관 등에서 공연·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총 2,546명의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은 지역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에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예술단체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후원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고위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에 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여중협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및 산하기관장 등 약 60명이 참석했으며, 조직 내 성비위 예방을 위해 리더가 갖추어야 할 책임감과 감수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교육 강사는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자 한국범죄학회 수석이사인 민수진 박사가 맡아,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공직사회에서 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리더십의 중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설명했다.

고위직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지속 확대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힘을 계속하겠다.

김민석 기자

평창군, 병해충 증가 속 드론 활용 효율적 대응

평창군농업기술센터는 농번기 농가의 일손 부담을 줄이고 영농비 절감을 위해 추진한 드론 활용 지원사업을 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임야 중심의 지역 특성 등으로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드론을 활용한 정밀 약제 살포 방식으로 올해 총 1,257ha를 방제했으며, 이는 지난해 906ha 대비 38.7% 증가한 실적이다.

특히 올해는 고온과 잦은 강우로 병해충이 급증해 농가의 방제 부담이 예년보다 크게 높았던 상황으로, 드론 방제가 큰 효과를 발휘했다.

군은 병해충 방제 외에도 과수 인공수분, 온실·축사 차광제 도포 시범사업 등을 드론 기술에 적극 접목해 농작업 효율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김민석 기자

2025년 제2회 ‘형성 자활 한마당’ 개최

형성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재진)는 12일, 센터 종사자와 자활참여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시 일원에서 '2025년 제2회 형성자활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활참여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자활 의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특히 올해 자활기업으로 새롭게 출범한 속초시 우수 자활사업단 '햇살세탁'을 방문해 운영방식, 조직 운영의 경험, 사업화 과정에서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형성군 실정에 맞는 적용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실질적인 학습을 이어갔다.

이날 참여자들은 속초 뮤지엄엑스와 속초수산관광시장을 둘러보며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근로와 일상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서로 소통하며 유대감을 높이는 교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형성자활한마당'은 형성군자활기금을 활용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성과공유회 형태의 첫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반영해 선진지 견학과 문화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역량을 키우고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형성지역자활센터는 현재 14개 자활사업단에서 9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2개 사업단은 자활기업으로 성장해 지역사회 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김민석 기자

춘천시, 화목보일러 농가에 재처리용기 보급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재처리용기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이 계획은 가을철 실시한 화목보일러 지역담당제 운영 과정에서 다수의 농가 재처리 용기가 노후되거나 보유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마련됐다.

화목보일러 지역담당제는 산불감시 인력과 마을 이·통장이 지역담당자로 참여해 월 1회 이상 농가를 방문해 화목보일러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제도다.

점검 결과 연소 잔재물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거나 임시 보관용기가 오래돼 안전 사용이 어려운 사례가 많았으며 산림과 가까운 농가의 경우 잘못된

재처리 관리로 비화 및 산불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시는 농가의 안전한 연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리터 재처리용기를 보급한다.

실질적인 보급은 오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용기 외부에는 '산불예방'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문구를 부착해 산불 예방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재처리용기 보급을 통해 농가의 산불 예방 안전성을 높이고 화목보일러 연료로 소나무류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시,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상징물 확정

도민체전 상징물(엠블럼, 마스코트, 구호) 확정으로 개최 분위기 본격 조성!



동해시는 2026년 동해시에서 개최되는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회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상징물(엠블럼, 마스코트, 구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을 바탕으로 전문 디자인 용역을 진행해 동해시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상징

물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사용 승인을 받아 대회 공식 상징물로 확정했다.

대회 엠블럼은 경기장 트랙과 시상대를 모티브로, 동해시의 대표 이미지인 바다(동해바다)와 태양(해오름의 고장)의 색인 블루와 레드를 조합해 제작했다. 추상적인 심볼 대신 '61'이라는 직관적인 숫자를 사용해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정체성을 명

확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대회 마스코트는 동해시 관광 캐릭터인 해불이와 푸파,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캐릭터 강원이와 특별이를 함께 구성해 '하나되는 도민, 함께하는 체전'이라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대회 구호는 "별유천지 동해에서 도약하는 강원의 힘"으로, '하늘 아래 특별한 곳'이라는 의미의 '별유천지' 동해시에서 도민 모두가 화합과 단결 속에 대회를 즐기며 도약의 에너지를 얻자는 뜻을 담았다.

동해시 관계자는 "상징물 확정으로 대회 준비가 본격화 되었다"며, "도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체육축제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장예인생활체육대회의 엠블럼과 마스코트도 함께 확정됐다.

김민석 기자

수원도시공사

수원 경제자유구역의 신호탄
수도권 첨단과학 클러스터의 중심

탐동 이노베이션벨리

